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5.80원 상승한 1,305.80원에 마감
-------------	-------------------------------

1일 환율은 전일대비 15.80원 상승한 1,305.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00원 상승한 1,300.00원에 개장했다. 달러 강세 등을 반영해 상승 출발한 환율은 아시아장 달러인덱스 반락에도 불구하고 결제수요 유입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오후 장에서도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어 상승폭을 유지했고 1,305.8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9.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1.2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00.00	1307.80	1297.90	1305.80	1303.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70.11	890.32	870.09	889.1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04.00	1425.41	1403.65	1420.6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17	-7.07	-13.96	-27.88
	결제환율(수입)	-1.6	-5.98	-12.34	-23.6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 충격에...1,290원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5.80) 대비 10.95원 하락한 1,292.5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 충격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는 46.7을 기록하며 예상(47.8)을 하회했다. 시장에서는 주요 심리지수가 기준선 50을 13개월 연속 하회하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파월의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시기상조라는 발언이 비둘기로 해석되며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동반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 영역에 위치해있고 위험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었고 아시아장에서 달러 약세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90.25 ~ 1299.5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74.55 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95원 ↓■ 美 다우지수 : 36245.5, +294.61p(+0.82%)■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8.69 억달러■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5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